

경제주평

■ 2024년 한국경제 수정전망

- 체감경기 회복을 통한 성장기반 강화 필요

목 차

■ 2024년 한국경제 수정전망 - 체감경기 회복을 통한 성장기반 강화 필요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주요 부문별 리스크 점검	2
3. 시사점	14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저 자 :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 경 제 연 구 실 : 이 형 석 연 구 위 원 (2072-6247, walden0230@hri.co.kr)

신 지 영 선임 연구원 (2072-6240, jyshin@hri.co.kr)

노 시 연 선임 연구원 (2072-6248, syroh@hri.co.kr)

Executive Summary

□ 2024년 한국경제 수정전망

- 체감경기 회복을 통한 성장기반 강화 필요

■ 개요

국내경제는 외수를 중심으로 경기 저점을 형성해 가는 가운데 회복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국내경제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1.4%p로 급등하는 등 외수 경기 개선으로 성장률(전년동기대비)이 2분기 0.9%에서 1.4%로 대폭 상승했는데 이런 회복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현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해 11월 98.9p로 6개월 연속 하락했으나, 하락 폭이 축소되면서 경기 저점에 근접하고 있는 모양세이고, 향후 경기 향방을 보여주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해 4월 이후 7개월 연속 상승해 99.9p로 기준치인 100p에 근접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국내경제는 지난해보다 1%p 정도 높은 2% 초반대로 반등할 가능성이 크고, 이 추세를 유지한다면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부문별 회복세 차별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존해 있을 뿐 아니라 경기 회복 체감도 개선 지연에 따르는 불확실성 등도 존재하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하 본고에서는 주요 부문별 리스크 점검을 통해 경기 개선세 지속을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 주요 부문별 리스크 점검

① 소비

고물가·고금리 현상 지속, 실질 처분가능소득 감소 등의 영향으로 소비심리 회복이 지연되면서 회복세를 제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내 기준금리는 향후 물가 재불안 우려, 2023년 기준 GDP의 100%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계부채 리스크, 2%에 달하는 한미 간 금리 차 등을 배경으로 현 3.5% 수준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여 가계대출 금리의 하향 조정 폭 역시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명목 소득과 실질 소득 간 증가율 격차가 3.0%p 이상 수준이 유지되는 등 소득 개선 체감도가 약하고, 실질 처분가능소득은 감소하는 등 가계 소득 측면에서도 소비 회복세를 견인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이 부재한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경기 및 생활형편 전반에 대한 소비자심리 개선세가 미약한 가운데 기대인플레이션율(향후 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도 3%로 여전히 높아 강한 소비 회복 기대가 약하다.

② 건설투자

선행지표의 역대급 부진, 부동산 PF 부실, 건설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건설비용의 안정화 불확실성 등으로 건설투자의 하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설경기는

2023년 4분기에 본격적인 조정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며, 건설경기 선행지표의 부진이 금융위기보다 심화되고 있어 향후 건설투자의 하락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 특히, 건설 분야 자금실적 BSI도 100p를 크게 하회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기업의 부채비율 역시 크게 확대되면서 기업의 재무건전성과 자금 사정은 악화되고 있다. 부동산PF 부실화로 건설기업의 자금경색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임금과 전자재 비용 상승으로 건설비용 안정화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2024년 건설 체감경기의 악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건설투자 역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③ 설비투자

설비투자는 고금리로 인한 기업의 투자여력 훼손, 누증된 부채, 투자심리 회복 지연 등으로 설비투자의 강한 반등은 제약될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의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선행지표의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어 투자 수요의 본격적인 회복은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또한, 고금리, 경기 부진, 기업의 누증된 부채 등의 여파로 기업의 투자 여력이 약화되었다. 미국의 통화정책 피벗(pivot) 지연 및 글로벌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의 투자심리 회복 역시 늦춰지고 있다. 따라서, 2024년 설비투자는 기저효과 상의 반등에 그쳐 실제로 체감되는 투자의 회복은 미미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④ 수출

기업들의 수출경기 회복 체감도 개선이 지연되는 가운데 주요 수출대상국 경기 차별화,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의 리스크로 인해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국내 수출은 4분기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었지만, 선행지표인 수출경기확산지수는 지난해 11월 기준인 50p, 체감지표인 수출전망BSI는 올해 2월 76p로 기준 100p를 크게 하회하는 등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선반과 일반기계 및 자동차와 같은 특정 품목, 미국과 EU 및 중동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는 등 품목별 지역별 수출 경기 차별화 현상이 뚜렷해 본격적인 수출 경기 회복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 올해 수출은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미국과 일본 및 유럽은 경기선행지수가 기준치인 100p를 하회하는 등 주요국 경기 부진이 우려되고,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장기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확대된 동시에 원화의 실질실효환율 약세에도 불구하고 경쟁국 통화인 엔화와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수출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등 외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⑤ 고용

지표 상의 양호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의 차별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고용시장은 실업률과 고용률이 각각 2.7%, 62.6%로 역대 최저·최고 수준을 기록하

면서 호조세를 보였다. 다만, 여성, 60세 이상,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 및 숙박·음식점업 등을 중심으로 신규 취업자가 증가하는 등 성별, 연령별, 산업별 차별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올해 역시 이어질 가능성이 커 고용시장 체감도는 여전히 낮을 전망이다.

< 2024년 한국 경제 전망 >

구 분	2022년 연간	2023년			2024년(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경제성장률 (%)	2.6	0.9	1.8	1.4	2.3	2.1	2.2
민간소비 (%)	4.1	3.1	0.6	1.8	2.0	2.4	2.2
건설투자 (%)	-2.8	1.8	1.1	1.4	-0.5	1.5	0.5
설비투자 (%)	-0.9	5.3	-4.0	0.5	-2.0	5.0	1.5
수출증가율 (%)	6.1	-12.4	-2.3	-7.5	12.5	6.2	9.3
소비자물가 (%)	5.1	3.9	3.3	3.6	3.0	2.4	2.7
실업률 (%)	2.9	3.0	2.4	2.7	3.2	2.6	2.9

주 : 실적치는 한국은행, 통계청, 무역협회, 2024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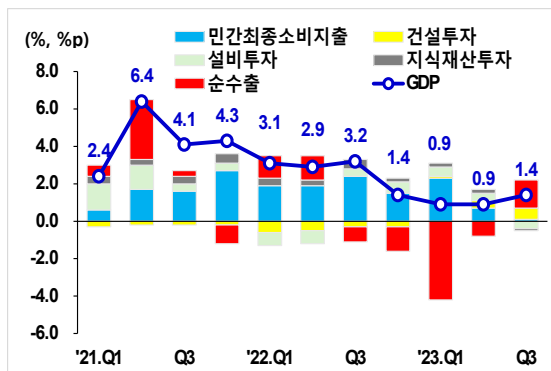
■ 시사점

2024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이전 전망과 같이 2% 초반대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나, 이를 위해서는 외수 환경 개선과 함께 국내 경제주체들의 체감경기 회복을 통한 견실한 내수 기반 조성이 필요한 만큼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첫째, 국내 통화 및 재정 정책은 지금까지와 같이 대내외 환경 변화에 맞춰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책기조 변화 등에 대한 소통 강화를 통해 국내 경제주체와 시장의 긍정적인 기대를 형성하고 유지해 경기 전반에 걸쳐 회복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지금까지 경기 버팀목 역할을 해 오던 소비 활력 유지를 통해 내수 시장 전반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자영업이나 소상공인은 물론 내수 전반에 걸쳐 경기 회복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 셋째, 수출 경기 회복세 유지 및 국내 파급효과 확대 등을 통해 외수발 경기 회복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고용 시장 모니터링 강화, 최저 임금 준수도 제고 등을 통해 일자리의 양과 질 측면에서의 개선을 꾀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저소득층과 같은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경기 회복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그로 인한 고통이 가중될 수 있어 사회 안전망 개선 및 확충 등을 통해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개요

- **국내경제는 외수를 중심으로 경기 저점을 형성해 가는 가운데 회복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음**
 - 지난해 3분기 국내경제는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외수 부문의 성장기여도 개선으로 성장률이 대폭 상승
 - 국내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은 올해 들어 1, 2분기는 0.9% 성장에 그쳤으나, 3분기에는 1.4%로 반등
 - 이는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1~2분기 각각 -4.2%p, -0.8%p에서 3분기 1.4%p로 대폭 개선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
 - 단, 1분기 2.3%p로 가장 큰 성장기여를 보였던 민간최종소비지출이 2, 3분기 각각 0.7%p 0.1%p로 빠르게 둔화되고, 설비투자의 성장기여도가 3분기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등 내수 부문은 부진
 - 최근 국내 경기는 저점에 근접해 가는 가운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
 - 현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해 11월 98.9p로 6개월 연속 하락했으나, 하락 폭이 축소되면서 경기 저점에 근접하고 있음
 - 향후, 경기 향방을 보여주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해 4월 98.5p에서 99.9p로 7개월간 상승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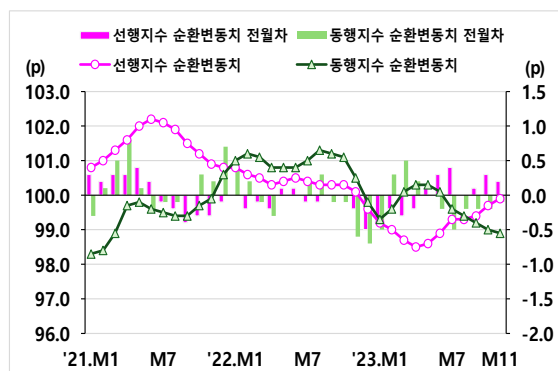
< 경제성장률 및 부문별 성장기여도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주 : 지식재산투자는 지식재산생산물투자임.

< 경기 동행 및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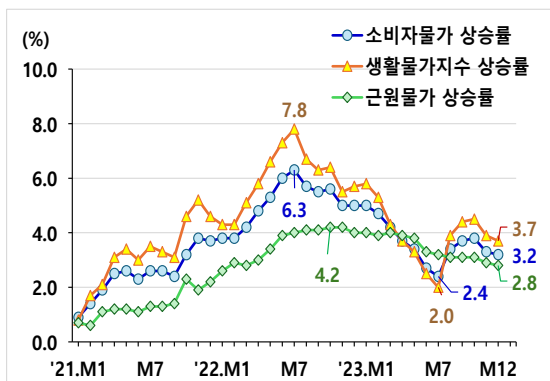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 주요 부문별 리스크 점검

①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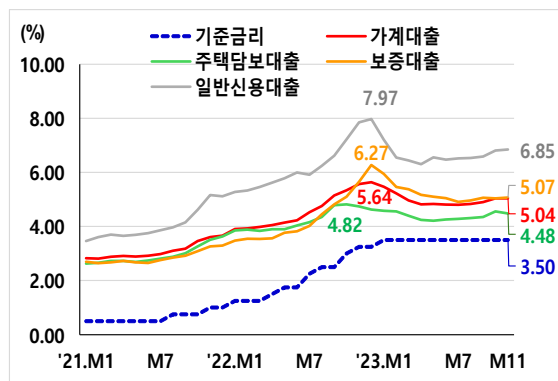
- **고물가·고금리 현상 지속, 실질 처분가능소득 감소 등의 영향으로 소비심리 회복이 지연되면서 회복세를 제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지난해 상반기 2%대로 빠르게 하향 안정화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반기 들어 반등하는 등 물가 재불안 우려 상존
 -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 2023년 7월 2.4%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12월에는 3.2%를 기록
 - 다만, 가격 변동이 심한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면서 2023년 12월 2.8%까지 하락
- 물가 재불안 우려, 가계부채 리스크, 한미 간 금리 차 등을 배경으로 당분간 현 기준금리 수준이 유지될 전망으로 이는 가계 소비 제한 요인으로 작용
 - 국내 기준금리는 향후 물가 재불안 우려, 2023년 기준 GDP의 100.8% 정도로 추정되는 가계부채 리스크¹⁾, 2.0%p에 달하는 한미 간 금리 차 등을 배경으로 현 3.5% 수준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가계대출 금리의 하향 조정 폭 역시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

< 부문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 < 기준금리 및 부문별 가계대출 금리 추이 >



자료 : 통계청.

주 : 근원물가 상승률은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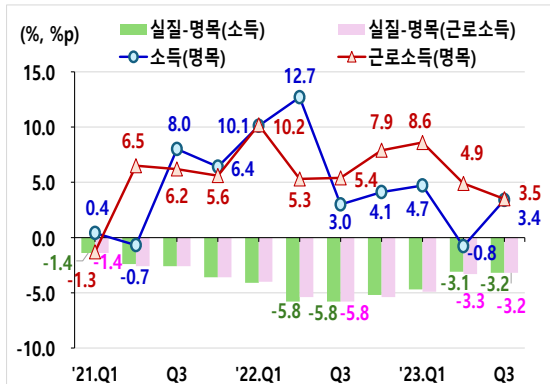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1) 금융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보도자료, 2024년 1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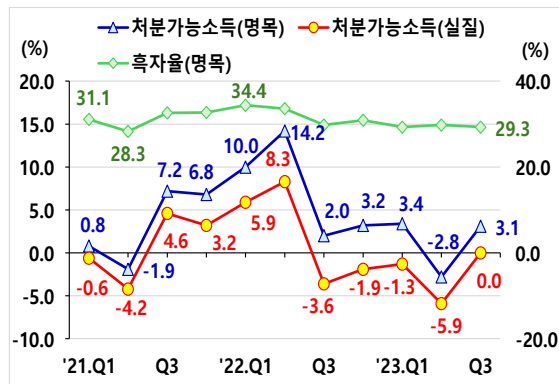
- 명목 소득과 실질 소득 간 증가율 괴리, 실질 처분가능소득 감소와 같이 가계 소득 측면에서도 소비 회복세를 전인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이 부재한 상황
 - 2023년 1분기 이후 명목 소득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고물가 영향으로 실질 소득 증가세 역시 빠르게 약화되면서 명목 소득 증가율과의 격차가 3%p 이상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등 소득 개선 체감도가 약화
 -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처분가능소득 역시 명목상으로는 대체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실질로는 감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가계 흑자율도 소폭이나마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 가계 명목 및 실질 소득 증감률 추이 >



자료 : 통계청.

< 가계 처분가능소득 증감률 및 흑자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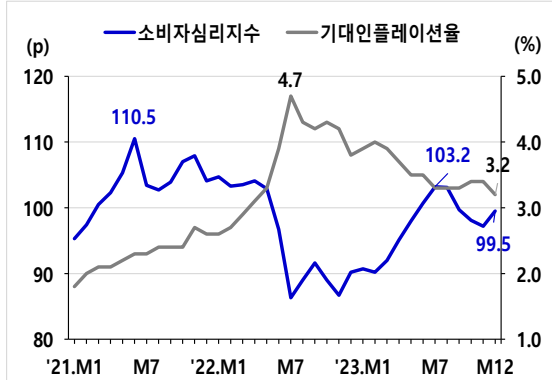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주 : 처분가능소득=소득-비소비지출, 흑자율 = (흑자액/처분가능소득)*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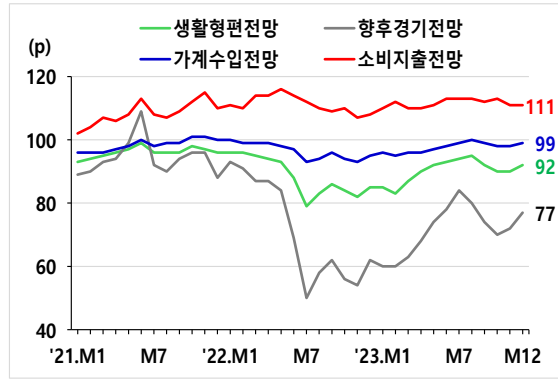
- 경기 및 생활형편 전반에 대한 소비자심리 개선세가 미약한 가운데 기대인플레이션율도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강한 소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전체 소비자심리지수는 2023년 12월 기준 99.5p로 최근 소폭 상승했으나, 기준치인 100p 이하 수준을 유지
 - 부문별로도 동월 향후경기전망,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모두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기준치인 100p을 하회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소비지출전망이 111p로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으나 회복 중
 - 향후 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여전히 3%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 중

< 소비자심리지수 및 기대인플레이션을 추이 >



자료 : 통계청.

> < 부문별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



자료 : 통계청.

② 건설투자

○ **선행지표의 역대급 부진, 부동산PF 부실, 건설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건설비용의 스티키인플레이션(sticky inflation)으로 건설경기의 둔화는 불가피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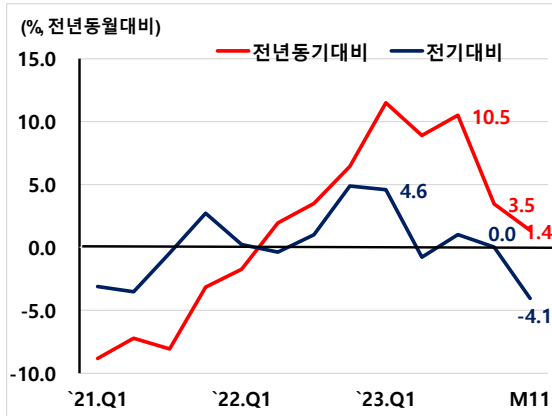
- 건설경기는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

- 건설기성(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은 2023년 3분기까지 양호한 추이를 보여주었으나, 10월과 11월에는 둔화되기 시작
- 특히, 11월 건설기성 증감률(전기대비)은 -4.1% 기록하면서, 지난 3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

- 건설경기 선행지표의 하락 폭이 금융위기 시기보다 심화되면서, 향후 건설경기의 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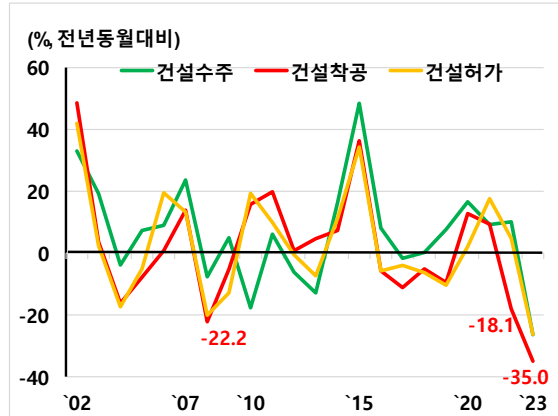
- 건설경기의 선행지표로 인식되는 건설수주, 건설착공, 건설허가가 2023년(11월까지 누계기준) 전년동기대비 각각 -26.4%, -35.0%, -26.2%를 기록하면서 금융위기 시기보다 악화
 - ※ 2008년 건설수주, 건설착공면적, 건설허가 증감률(전년대비, 통계청): -7.6%, -22.2%, -20.1%
- 특히, 건설착공은 2년 연속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향후 2~3년 건설경기 부진의 장기화가 예상

< 건설기성 추이 >



자료 : 통계청.

< 건설경기 선행지표 추이 >



자료 : 통계청.

주 : '23년 자료는 1~11월 누계 기준.

- 2023년 양호했던 건설기성 지표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업의 재무건전성과 자금 사정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건설업 자금실적 BSI의 경우에는 기준선인 100p를 하회하고 있는 가운데, 2022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기록하고 있음
- 건설업의 부채비율(자본 대비 부채)은 2021년 1분기 108.1%에서 2023년 3분기 155.2%로 큰 폭으로 상승. 반면, 전산업의 부채비율은 작년 1분기 이후 조정되고 있는 상황

- 부동산PF 부실화로 인한 건설기업의 자금경색 문제는 건설투자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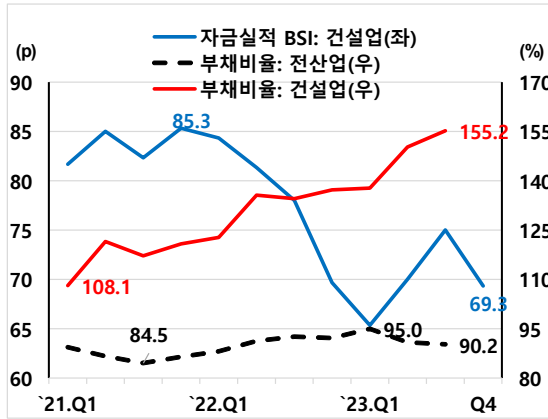
-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23.3분기 기준 134.3조원을 기록하며 코로나19 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
 - ※ 부동산 PF대출 잔액(조원, 한국은행) : '20년, 92.5 → '21년 113.0 → '22년 130.3 → '23.3분기 134.3
-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증권사, 저축은행, 여전업권, 상호금융권이 '23.3분기 기준 각각 13.9%, 5.6%, 4.4%, 4.2% 등을 기록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

- 건설 인플레이션의 하향 안정화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

- 건설경기의 부진으로 인한 기업의 자재 수요 감소로 건설비용의 가격은 안정화될 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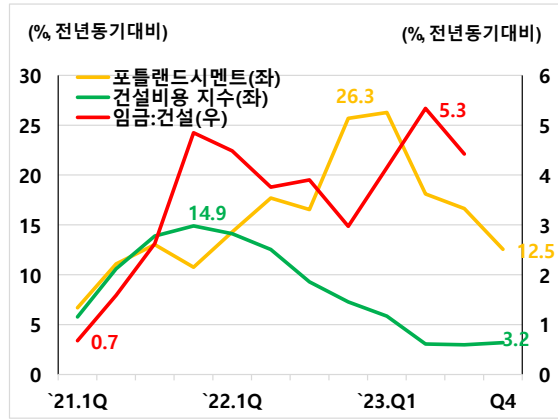
- 그러나, 인력난에 따른 높은 임금 상승률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전자재인 시멘트 가격(전년동기대비)이 여전히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건설비용의 하향 안정화를 제약할 전망

< 건설업 자금실적 BSI, 부채비율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 포틀랜드 시멘트, 건설비용지수 및 건설임금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 2024년에도 건설투자와 체감경기 모두 악화될 것으로 예상

- 2023년 건설경기는 지표상으로는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건설기업의 체감경기는 심각하게 악화되었던 상황
- 그러나, 2024년은 건설기업의 체감경기과 지표 모두 부진한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 건설경기 선행지표가 유례없이 심각하게 하락하면서, 올해뿐만 아니라 향후 2~3년에 걸쳐 건설경기의 부진은 지속될 가능성
- 특히, 부동산 PF 부실이 본격화되는 경우 건설경기의 침체가 심각해질 가능성에 유의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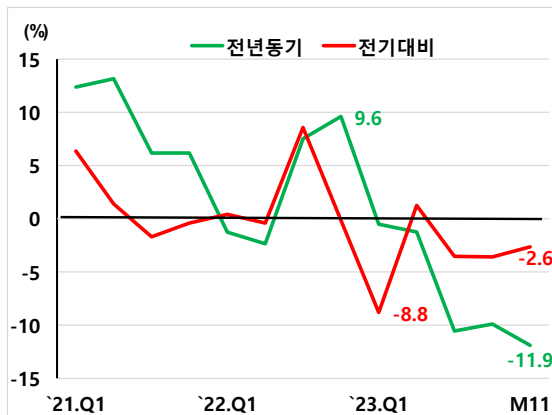
③ 설비투자

- 고금리로 인한 상흔효과(scaring effect), 누중된 부채, 기업 투자심리 회복 지연 등으로 설비투자는 기저효과 상 반등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작년 상반기부터 설비투자의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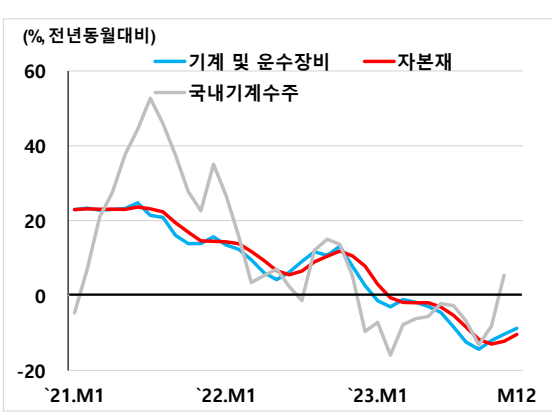
- 설비투자지수 증감률(전년동기대비)은 2023년 1분기 이후 하락하는 추세
 - 전기대비 기준으로도 작년 2분기 이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설비투자의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
- 또한, 선행지표의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어 투자 수요의 본격적인 회복은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으로 평가
-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국내 기계수주는 2023년 10월 이후 상승세로 전환
 - 그러나, 또 다른 선행지표인 기계 및 운수장비 및 자본재 수입액은 여전히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는 등 선행지표의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

< 설비투자지수 추이 >



자료 : 통계청.

< 설비투자 선행지표 추이 >



자료 : 통계청, 무역협회.
주 : 3개월 이동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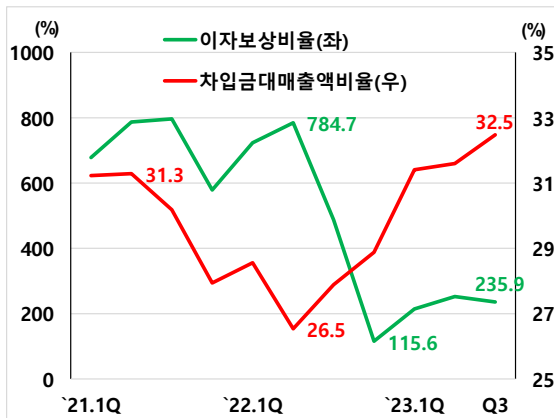
- 기업의 투자 여력은 고금리, 경기 부진, 누증된 부채 등의 여파로 약화된 상황
 - 고금리와 경기 부진에 따른 기업 영업이익 감소로 이자보상비율(interest coverage ratio)이 큰 폭으로 하락
 - 또한, 차입금대매출비율(debt to sales ratio)이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자산건전성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
- 글로벌 정책 불확실성으로 기업의 투자심리 회복이 지연되고 있음
 - 하향 안정화되었던 글로벌정책 불확실성지수(Global 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dex)는 지난 2023년 10월 이후 상승세로 반전
 - 기업의 투자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지수(US

Monetary Uncertainty Index)와 기후정책 불확실성지수(Climate Policy Uncertainty Index) 역시 상승세로 반전

- 특히, 2024년은 주요국인 미국, EU 등 총 76개국에서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향후 정책과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전망
- 따라서, 기업 투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제조업 설비투자 전망 BSI 역시 기준치인 100p를 하회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진입하지 못한 상황

※ 제조업 설비투자 전망 BSI(p, 한국은행) : '21.12M, 98 → '22.12M 92 → '24.1M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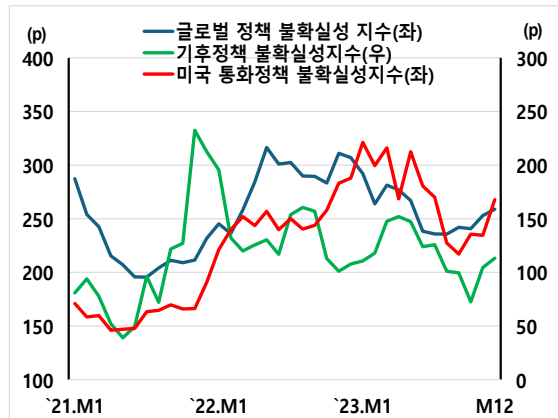
< 이자보상비율 및
차입금대대출액 비율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주 : 이자보상비율은 이자비용 대비 영업이익, 차입금대대출액비율은 대출액 대비 차입금.

< 글로벌정책, 기후정책,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지수 >



자료 : Economic Policy Uncertainty.

주1. 3개월 이동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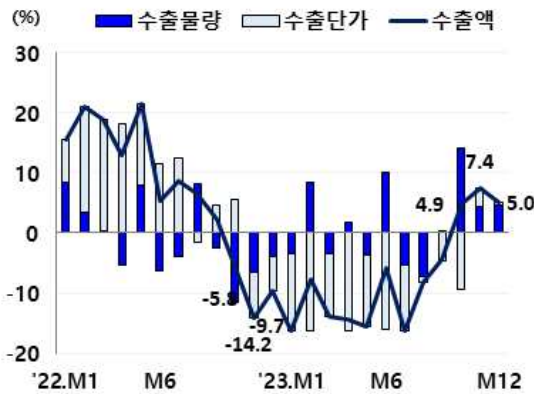
주2. 지수의 장기평균을 기준치 100p로 설정.

- 2024년 설비투자는 기업의 투자 여력 악화, 글로벌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심리 회복의 지연으로 기저효과 상의 반등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2024년 설비투자는 기저효과, IT경기 등의 회복 등으로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고금리의 상흔효과(scaring effect)로 기업의 투자 여력이 훼손된 가운데 미국의 통화정책 및 글로벌 정책의 불확실성은 기업의 투자 심리를 저해할 것으로 예상

④ 수출

- 수출기업이 체감하는 수출경기 회복이 지연된 가운데 주요 수출대상국 경기 차별화,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리스크 요인으로 향후 불확실성이 확대
- 2023년 4분기 수출은 증가 전환하였으나, 선행지표인 수출경기확산지수와 체감지표인 수출전망BSI의 개선은 지연된 상황
 - 국내 수출은 2023년 10월 4.9%로 약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12월(5.0%)까지 증가세를 지속하여 2023년 4분기 전년동기대비 5.8% 증가
 - 한편, 수출을 약 7개월 선행하는 수출경기확산지수는 2023년 10월과 11월 각각 49.5p, 50.0p를 기록하면서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지 못한 상황
 - 수출기업(매출액 중 수출비중 50% 이상)이 체감하는 수출전망BSI도 2024년 2월 76p로 2023년 12월과 2024년 1월에 이어 보합에 그치면서 기준선(100p)을 크게 하회하는 부진한 흐름이 장기화하는 모습

< 월별 수출 증가율 >



자료 :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주 : 전년동기비 기준.

< 수출전망BSI · 수출경기확산지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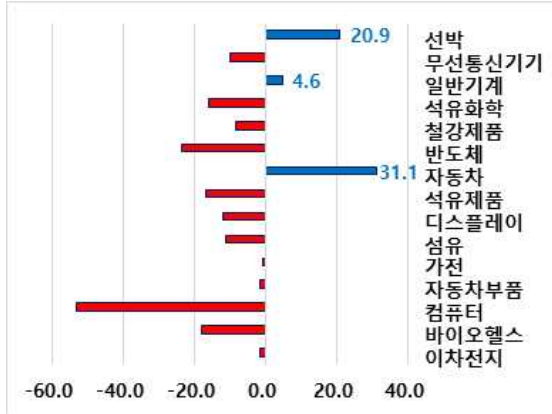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주 : 수출경기확산지수는 50p 기준이며, 그래프는 3월 이동평균 기준.

- 특히, 수출 실적이 품목별·지역별로 차별화되면서 수출의 양은 물론 구조적 측면에서 수출의 질이 크게 악화된 점이 체감 수출경기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 2023년 연간 기준으로 15대 수출 품목 중 2022년 대비 수출이 증가한 품목은 선박(20.9%), 일반기계(4.6%), 자동차(31.1%) 세 품목에 불과하였으며, 철강제품(-8.4%), 컴퓨터(-53.3%), 섬유(-11.2%) 등은 1~4분기 내내 감소세를 지속

- 또한, 주요 수출대상국 중 수출이 증가한 지역은 단 네 곳(미국, EU, 중동, CIS)에 그쳤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19.9%)은 침체 심화

< 2023년 15대 품목 수출증가율(%) > < 2023년 주요 수출대상국별 수출 >



국가	금액(\$억)	비중(%)	증가율(%)
중국	1,248	19.7	-19.9
미국	1,157	18.3	5.4
일본	290	4.6	-5.2
아세안	1,092	17.3	-12.6
EU	682	10.8	0.1
중동	188	3.0	7.4
중남미	247	3.9	-7.1
CIS	128	2.0	13.3
베트남	535	8.5	-12.3
인도	179	2.8	-5.3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주 : 증가율은 2022년 대비 기준.

자료 : 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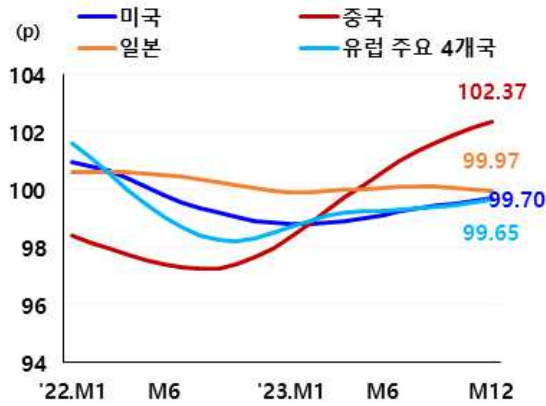
주 : 비중은 2023년 총 수출액 대비, 증가율은 2022년 대비 기준.

- 2024년 수출은 증가세 전환이 전망되나, 주요 수출대상국별 경기 흐름 차별화, 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실제 기업이 체감하는 본격적인 수출경기 회복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음

- 2024년 수출은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 반도체 경기 저점 통과 등으로 반등이 기대되며, 특히 지난해 수출 물량과 단가가 모두 큰 폭 감소하며 침체가 심화했던 기저효과의 영향도 크게 작용하면서 증가세 전환이 예상
- 그러나, 주요 수출대상국 중 중국은 경기 상승이 예상되는 한편, 미국, 일본, 유럽 등은 경기선행지수가 기준선(100p)을 하회하여 경기 부진이 우려
- 또한,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장기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확대된 동시에 원화의 실질실효환율 약세에도 불구하고 엔화,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수출가격경쟁력이 약화한 점 또한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²⁾
 - ※ 원화 실질실효환율(p): ('23.M1) 98.3 → (M6) 97.4 → (M12) 97.4
 - ※ 엔화 실질실효환율(p): ('23.M1) 78.9 → (M6) 74.3 → (M12) 73.6
 - ※ 위안화 실질실효환율(p): ('23.M1) 98.1 → (M6) 91.9 → (M12) 92.0
- 이 밖에도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에 따른 교역 여건 및 물류비용 악화 가능성, 미·중 갈등 향방 등도 수출경기 불확실성을 높이는 것으로 우려

2) 자료는 BIS, 실질실효환율은 2020=100 기준.

< 주요국 OECD 경기선행지수 추이 > < 원/달러 환율변동성 추이 >



자료 : OECD.



자료 :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주 : 원화환율 변동성은 전일대비 대미환율 변화율의 월중 표준편차.

⑤ 고용

○ 양호한 고용 지표에도 불구하고 고용 시장의 차별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질 전망

- 2023년 실업률 및 고용률은 각각 2.7%, 62.6%로 역대 최저·최고를 기록하며 고용 호조세가 지속

- 코로나19 충격으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4.0%)까지 상승하였던 실업률은 2023년 2.7%로 하락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
- 2023년 고용률 또한 역대 최고치인 62.6%를 기록하며 고용 시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

- 하지만 지표상 고용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성별·연령별·산업별 차별화, 미흡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

- 2023년 취업자는 전년 대비 32만 7,000명 증가한 가운데 연령별·산업별·성별 차별화가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남
- 먼저 성별로 보면 2023년 남성 취업자는 전년대비 2만 4,000명 증가한 것에 그친 반면, 여성 취업자는 30만 3,000명 증가하며 전체 취업자 증가 폭의 대부분을 차지
-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취업자가 36만 6,000명 증가한 것과 달리 40~49세 및 20~29세 취업자는 각각 5만 4,000명, 8만 2,000명 감소하며 취업자의 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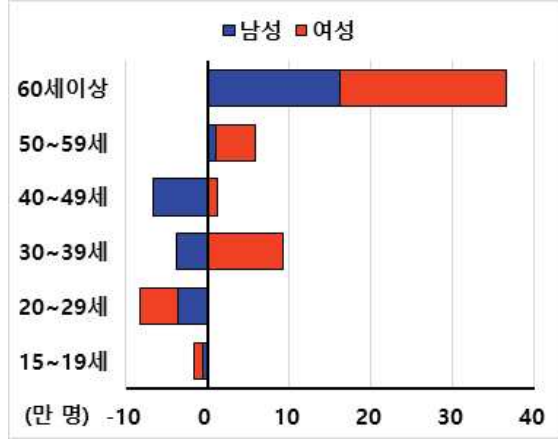
가세가 고연령층에 편중되어 있음을 시사

< 실업률 및 고용률 >



자료 : 통계청.

< 성별·연령별 취업자 증감 >



자료 : 통계청.

주 : 2022년 대비 2023년 기준.

- 산업별로도 보면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14만 3,000명) 및 숙박·음식점업 취업자(11만 4,000명)는 크게 증가한 반면, 제조업(△4만 3,000명) 및 도매·소매업(△3만 7,000명) 취업자는 감소하며 차별화가 심화
- 종합해보면 2023년 취업자는 여성, 60세 이상,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 및 숙박·음식점업 중심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들 일자리의 질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고용 호조세를 체감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성별·연령별·산업별 취업자의 시간당 임금총액 및 비정규직 비중 >

구분		시간당 임금총액(원)	비정규직 비중(%)
전체		22,651	37.0
성별	남성	25,886	29.8
	여성	18,113	45.5
연령별	29세 이하	16,248	42.6
	30~39세	22,986	21.6
	40~49세	26,272	26.3
	50~59세	25,135	33.2
	60세 이상	18,901	68.7
산업별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	18,254	52.5
	숙박·음식점업	12,811	54.8
	도매·소매업	21,563	33.1
	제조업	23,929	16.1

자료 : 통계청, 고용노동부.

주 : 시간당 임금총액은 2022년 6월, 비정규직 비율은 2023년 8월 기준.

- 2024년 고용 시장은 전년보다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고용 지표와 체감 고용 상황 간 괴리는 확대될 전망

- 고용 지표가 경기를 후행적으로 반영하는 만큼 올해는 작년의 경기 부진에 따른 고용 시장 부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임³⁾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실업률, 높은 고용률 등 지표상으로는 양호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고용 시장의 차별화 흐름 또한 지속되어 고용 지표와 체감 고용 상황 간 괴리는 확대될 전망

< 현대경제연구원의 2024년 한국 경제 전망표 (2024.1) >

구분	2022년 연간	2023년			2024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2.6	0.9	1.8	1.4	2.3	2.1	2.2
	민간소비 (%)	4.1	3.1	0.6	1.8	2.0	2.4	2.2
	건설투자 (%)	-2.8	1.8	1.1	1.4	-0.5	1.5	0.5
	설비투자 (%)	-0.9	5.3	-4.0	0.5	-2.0	5.0	1.5
대외거래	경상수지(억 달러)	298	24	300	324	200	320	520
	무역수지(억 달러)	-478	-263	161	-102	51	255	306
	수출증가율 (%)	6.1	-12.4	-2.3	-7.5	12.5	6.2	9.3
	수입증가율 (%)	18.9	-7.8	-16.4	-12.1	2.1	3.5	2.8
소비자물가상승률 (%)	5.1	3.9	3.3	3.6	3.0	2.4	2.7	
실업률 (%)	2.9	3.0	2.4	2.7	3.2	2.6	2.9	
취업자수 증감(만 명)	82	37	28	33	15	31	23	

3)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4분기~2024년 1분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채용계획 인원은 전년 동기대비 8만 1,000명 감소한 55만 6,000명임.

3. 시사점

- 2024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이전 전망처럼 2% 초반대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나, 외수 환경 개선과 함께 국내 경제주체들의 체감경기 회복을 통한 견실한 내수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 첫째, 국내 통화 및 재정 정책은 지금까지와 같이 대내외 환경 변화에 맞춰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책기조 변화 등에 대한 소통 강화를 통해 국내 경제주체와 시장의 긍정적인 기대를 형성하고 유지해 경기 전반에 걸쳐 회복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 통화정책은 물가안정목표를 견지하는 가운데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나 국내 경기 흐름에 적절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함
 - 재정정책은 물가 불안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되, 세수확보 대책 마련 등 재정건전성 악화 등에 대한 시장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 제시도 필요함
 - 둘째, 지금까지 경기 버팀목 역할을 해 오던 소비 활력 유지를 통해 내수 시장 전반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자영업이나 소상공인은 물론 내수 전반에 걸쳐 경기 회복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
 - 임시공휴일 지정, 관광인프라 확충 등으로 국내 관광 계기와 매력을 높임과 동시에 국내 관광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불공정 상거래 질서를 개선함으로써 국내 관광시장의 활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제 이벤트 유치 지원 강화, 한류 마케팅 확대 등을 통해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관광 수요를 국내로 환기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어야 함
 - 셋째, 수출 경기 회복세 유지 및 국내 파급효과 확대 등을 통해 외수발 경기 회복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 경제외교 성과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각국과 체결한 협약과 계약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강화
 - 기존 수출 지원책 유지, 건설 및 플랜트 등 대형 수출 계약에 대한 보증이나 보험 등 정책 지원 등 수출 경기 회복세 유지를 위한 정책 지원 지속
 - 각종 규제 합리화, 세제 등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국내 투자환경 개선 노

력 지속으로 민간 일자리 및 가계 고용소득 확대에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고리 형성이 중요

- 넷째, 고용 시장 모니터링 강화, 최저 임금 준수도 제고 등을 통해 일자리의 양과 질 측면에서의 개선을 꾀할 필요가 있다.
 - 국내 일자리가 연령별 산업별 직종별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어 임금 수준과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력이 약화되고 있는 만큼 고용 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이를 개선하려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함
 - 물가 상승 등의 여파로 최저 임금 역시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만큼 고용 현장의 최저 임금 준수도 제고를 위한 행정 노력을 통해 실질임금 악화를 예방하고, 가계의 고용소득 개선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저소득층과 같은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경기 회복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그로 인한 고통이 가중될 수 있어 사회 안전망 개선 및 확충 등을 통해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저소득 고령 1인 가구 등 가계 특성별 사회 안전망 차별화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개선해야 함
 - 현재 추진 중인 일자리나 금융 등의 부문에서의 사회 안전망의 경우에는 경기 회복세가 추세적으로 진행될 때까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 **HRI**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이 형 석 연 구 위 원 (2072-6247, walden0230@hri.co.kr)
 신 지 영 선 임 연 구 원 (2072-6240, jyshin@hri.co.kr)
 노 시 연 선 임 연 구 원 (2072-6248, syroh@hri.co.kr)